

SPEAKER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 왕립발레학교 졸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수석발레리나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 브누아 드 라당스 최우수
여성무용수상
- 보관문화훈장 서훈
- 바덴뷔르템베르크 공로훈장
- 고은문화상 문예부분 등
다수 수상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1. 강수진이 말하는 꿈

나의 꿈은 매우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꿈이 '먼 미래에 거창한 무언가가 되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나의 꿈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발레를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하루 꿈을 실현하며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삶에 계획은 필요하지만 꿈이 계획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세요. 요즘 사람들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 앞에 장벽처럼 서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 강수진이 말하는 열정

노력 자체에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연습벌레', '독종' 이라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발레가 좋고, 하고 싶으니 하는 것 뿐 입니다. 물론 연습 자체는 너무 힘듭니다. 울면서 연습한 적도 많죠. 하지만 그건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만족할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세요. 삶의 모토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대상은 바로 나 자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질투나 경쟁심, 불평은 삶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3. 강수진이 말하는 삶의 자세

모든 것은 반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연습하고 반복하였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습하고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세요.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만 재능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 때의 경험이 지금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에 부딪혔을 때는 누구나 힘들지만, 경험이 쌓이면 여유로워집니다.

20, 30대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 것도 모를 때였죠. 지금의 힘듦은 이후의 여유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관문 앞에서 쉽게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후의 삶이 더 힘들어 질 뿐입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후회가 없고, 솔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